



제목	Iran's influence: A Religious-Political State and Society in its Regio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Zed Books
발행일	2010. 8. 1.
저자	Elaheh Rostami-Povey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80
ISBN 또는 ISSN	978-1848132207

내용 요약

이 책은 중동 정책과 세계 정책에 이란이 끼치는 역할을 분석한 글로서 1979년의 이란 혁명과 이슬람 공화국으로의 급속한 재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의 주장은 이슬람 혁명은 기존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이란 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본질에 저항하여 진보적인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저자는 이란의 정치적 발전과 이슬람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지역적 역할과 세계적인 역할을 밝히고자 하였다.

저자는 중동 지역과 이란 내부의 정치사회적 운동을 조사하였다. 여성, 학생, 노동자, 좌익, 이슬람주의자,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들이 근대 이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레자 샤 정권은 자신이 억압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저항을 경험하였다. 특히 1940년대 이들은 조직적인 반대를 하였다. 1949년 무함마드 모사드(Mohammed Mossadeq)는 '민족전선(The National Front)'을 설립, 선거 개혁, 경제 개혁, 언론자유 등을 주장하였다.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설립되자 성직자 정권은 이란 내 다양한 부류의 권리 투쟁을 무시하였다. 먼저 여성들이 공격대상이 되었다. 여성에게 성적 분리와 히잡이 강요되었다. 1990년대 이란은 이슬람 보수주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또 세계 경제에 점차 편입되어 갔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거부한 자리를 유럽, 중국, 러시아, 인도가 차지하였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중요성은 커졌다.